

알-안달루스에서의 언어사용과 이슬람 및 모사라베 공동체

이 재 학*

단독 / 고려대학교

Lee, Jae-Hak(2009), El multilingüismo existente en las comunidades musulmanes y mozárabes en la Península Ibérica medieval.

Después de que las fuerzas islámicas invadieron la Península Ibérica en el año 711, los hispano-romanos empezaron a confrontar la cultura árabe y su lengua. En al-Ándalus los cristianos convivían con los árabes, judíos y berberies, y los musulmanes no prohibieron el uso de la lengua vernácula de los mozárabes. En realidad ellos vivían en una sociedad multicultural y la mayoría de sus habitantes fueron multilingües. Lo que descubre el presente estudio es que la lengua berberí no se perdió rápidamente como piensan muchos gramáticos y que ellos mantuvieron su lengua junto con su cultura por muchos siglos después de su invasión. El presente trabajo también analiza el árabe hablado en las comunidades musulmanes y mozárabes y descubre que el árabe que ellos hablaban fue una nueva variante llamada el árabe medio(o el árabe andalusí) creada por el contacto con la lengua romance.

Muchos gramáticos como Zamora Vicente ha postulado que el romance mozárabe(o romandalusí) se caracteriza por su arcaísmo. Pero el presente trabajo niega esta postulación y encuentra los rasgos lingüísticos que apoyan la nueva teoría de que el romance mozárabe no fue una lengua petrificada. En realidad el romance mozárabe no desapareció después de la Reconquista de Toledo como piensan muchos gramáticos sino que sobrevivió hasta la época de Alfonso X, el Sabio.

[mozárabe / el árabe / el berberí / multilingüismo / al-Ándalus;
모사라베어 / 아랍어 / 베르베르어 / 다중언어구사 / 알-안달루스]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A00030).

I. 들어가는 말

헤지라, 즉 이슬람 기원 원년인 서기 622년 이후 급속히 세력을 팽창한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전체를 장악한 후 소아시아 및 동부 지중해까지 그 세력을 넓히게 된다. 북아프리카까지 이슬람화한 이들은 서기 711년 모로코에서 집결하여 베르베르인 타리크(Tarik)의 지휘 아래 지브롤터(Gibraltar)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 서고트 왕국을 무너뜨리고 북서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하였다(이재학, 2002: 45). 1031년에 코르도바 칼리파토(Califato)의 내분으로 에미르들에 의해 지배되는 10여개의 소왕국인 타이파스(Taifas)로 알-안달루스(al-Ándalus)가 분열되기 전까지 무슬림들은 반도 중·남부 지역을 장악하며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소왕국으로 분열된 이들은 카스띠야 왕국의 알폰소 6세에 의해 톨레도(Toledo)가 정복되면서 점차 쇠퇴기를 맞게 된다(강석영, 1988; 레이몬드 카, 2006).

이베리아 반도 침공 후 300여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알-안달루스는 아랍인, 베르베르인,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는 일반적으로 아랍어, 모사라베어, 히브리어¹⁾의 세 가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알-안달루스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언어접촉으로 인한 언어변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중(bilingüismo) 또는 다중언어사용(multilingüismo)의 현실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1) 알-안달루스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인 알자마스(aljamas)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지닌 특권을 누리며 생활하였다. 이들은 문어체의 언어로는 히브리어(아랍어) 및 아랍어를, 구어체의 언어로는 로망스어 및 구어체 아랍어를 사용하였다. 11세기 말 이후 시작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북쪽 기독교 왕국으로 이주한 이들은 문어체의 언어로 히브리어, 아랍어 이외에 라틴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신들끼리의 비밀스러운 대화시에는 로망스어 대신 아랍어를 사용하였다(이재학, 2008).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및 로망스어, 즉 유대 스페인어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II. 알-안달루스의 베르베르어

이드리드 1세는 아랍인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짐에 따라 아랍 제일주의에 강하게 반발하던 베르베르인들을 포섭하여 오늘날의 모로코에 해당하는 지역에 북아프리카 최초의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를 789년에 설립하였다. 따라서 아랍어는 8세기말 이전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되던 일상어(*lengua vernácula*)가 아니었다. 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아랍어와 이들 고유 언어간에 방층어(*adstrato*)의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²⁾ 한 가지 확실한 것은 8세기말 이후 지배왕조의 언어인 아랍어가 이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결과, 이들의 일부 또는 다수가 아랍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³⁾ 그러나 베르베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711년은 이들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지 20년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써, 베르베르인들이 아랍어를 L1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이슬람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1만 2천명의 베르베르 군사들의 L1은 아랍어가 아닌 베르베르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르베르 전사들이 침공시에 아랍어를 구사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게 이들 중 상당수가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하였거나 구사하더라도 L2 수준에서 구사하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Bosch Vilá(1978)는 베르베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침공을 전후하여 아랍어를 받아들였다는 기존의 학설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López-Morillas(2000)는 이들이 내부 응집력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써 아랍인들이나 히스파니아-로마인들이 아닌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자신들이 부족들과

2) Wasserstein(1991: 4)은 7세기 말과 8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 온 베르베르인들 중 일부가 라틴어를 구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some of the Berbers who entered the peninsula in the seventh and eighth centuries seem to have known and used Latin."

3) Viguera Molins(2008: 302)는 북아프리카에서 아랍어와 'al-lātīnī' 간의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7세기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르베르인들이 라틴어를 구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언어학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의 구사언어에 대한 많은 이설들이 존재함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랍인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이들이 구사하던 언어를 편의상 '베르베르어'로 표기함을 밝혀 둔다.

죽내혼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아랍인들과는 다른 지역에 정착하며 자신들의 언어와 관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였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아랍인들과 인종, 문화, 관습, 언어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이들은 이질적인 아랍인들과 결국 동화하지 못하고 내분을 겪게 된다. 그 결과 11세기에 들어와 알-안달루스는 10여개의 타이파스로 분열, 1085년에 톨레도(Toledo)를 기독교도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결국 북아프리카를 제패한 베르베르인들의 부족연합체인 알모라비데(almorávides)가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 알-안달루스 지역을 재통합하였다. 알모라비데에 의한 알-안달루스 재통합은 베르베르인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의 지도자인 유수프 이븐 타슈핀(Yūsuf ibn Tāshufīn)은 베르베르인으로써 아랍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는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베르베르어가 아랍어와 마찬가지로 지배층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⁶⁾. 베르베르어가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언제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⁷⁾

4) López-Morillas(2000: 40)는 베르베르인들이 아랍인들의 거주지역과는 구분되는 지역에 정착하기는 하였으나 전자의 거주지역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나 산간지역에 정착하였다는 기존 학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they settled, in tribal groups, in clearly defined areas separate from those of Arab settlement(but not exclusively in remote and mountainous regions, as had generally believed).”

5) López-Morillas(2000: 41)는 유수프가 아랍어를 몰랐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싸우는 수도사’란 의미를 지닌 알모라비데를 정복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알모아데(los almohades)의 창시자 이븐 투마르트(Ibn Tūmart) 또한 베르베르어로 된 종교서적을 출간하는 등 베르베르어의 사용을 장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텍스트가 전해져 오지 않아 그 원형은 알 수 없음을 밝혀 둔다.

6) 오늘날 베르베르어는 북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약 4천개에서 5천개에 이르는 변이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르베르어로 기록된 텍스트는 거의 없으며 사하라 남부에 거주하는 투아레(Tuareg)인들만이 교유문자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명식, 2004: 210-217). 이러한 이유들로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사용된 베르베르어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음을 밝혀 둔다.

7) Wasserstein(1991: 12)은 그의 논문에서 알-안달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베르베르인들 중 귀족이나 중간계급 이상만이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구사자였을 뿐 그 외 대부분의 평민들은 후자만을 사용하는 단일언어 구사자였다는 Glick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it seems probable that only the aristocracy and middle classes were fully Arabized, while the masses remained monolingually or bilingually Berber-speaking.” 그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타이파스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치·경제·군사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오랜 기간동안 베르베르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를 보존하였으며, 이들이 지배하는 지역은 베르베르어가 상실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알-안달루스 지역은 아랍어뿐만이 아니라 베르베르어가 로망스어 등과 함께 통용되는 다중언어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알-안달루스의 아랍어

알-안달루스에서 사용된 아랍어는 이 지역에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베르베르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들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피정복민인 히스파니아-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로망스어⁸⁾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알-안달루스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아랍어 방언이 탄생하였다.⁹⁾¹⁰⁾ 아랍어가 피정복 지역에서

려나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고 부연하였다.

8)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할 당시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에 대한 명칭은 통속 라틴어 방언, 후기 라틴어(*latín tardío*), 전기 로망스어(*romance temprano*), 원형 스페인어(*proto-español*)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로망스어’란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9) Corriente(1981)와 Fernando(1997)는 알-안달루스 아랍어 방언에 미친 베르베르어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베르베르어의 잔재가 매우 미미함을 밝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rriente(2005: 186)는 베르베르어가 711년 이후 알-안달루스 아랍어 방언 형성에 어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음성, 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a pesar del escaso número de berberismos transmitidos al and., y menos aun al iberorrom., esta lengua de la mayoría del primer contingente de invasores...no careció de importancia en la gestación de algunos rasgos fonéticos, morfosintácticos y léxicos del and. y, de resultas, de los arabismos del iberorrom.” 그러나 이베리아 침공 당시 사용되던 베르베르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안달루스 아랍어 방언에 미친 상기 언어의 영향은 지명이나 일부 어휘를 통하여 추론만 할 수 있을 뿐 음성·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불가능함을 밝혀 둔다.

10) 최진영(2003: 153-154)은 현재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지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거주하고 있는 베르베르인들이 고전 아랍어에 가장 가까운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으며, 이들이 구사하는 아랍어의 순수성과 정확성을 배우기 위해 이슬람 세계의 문법학자들이 이들을 만나러 사막을 건너가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베

사용되던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아랍어 방언이 탄생하는 현상은 알-안달루스 지역만이 아닌 이슬람권 전역에서 일어나던 일반적 현상으로써 양층언어(diglossia)인 아랍어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영태, 2004: 16; 김종도, 2004: 33).¹¹⁾

따라서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사용된 아랍어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양층언어 현상의 전형적인 예인 아랍어의 언어학적 특징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아랍어는 동일 언어 내에 문어체와 구어체로의 층별 구분이 존재하는 언어로써, 문어체로써의 체계가 잡힌 7세기 초 이후 현재까지 음성·음운·형태·통사론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보수적인 고전 아랍어(árabe clásico)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체 아랍어(árabe coloquial)가 공존한다. 구어체 아랍어는 무수한 형태의 방언이 존재하며 지역과 계층에 따른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으로 구분된다.¹²⁾ 구어체 아랍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온 반면 고전 아랍어는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래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새로운 사물에 대한 명칭부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고전 아랍어의 언어적 특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시

르베르인들이 이미 아랍화 되어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상실하고 아랍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베르베르 방언에 대한 상기 연구자의 연구 역시 이베리아 침공 당시에 베르베르인들이 구사하였던 언어와는 거리가 먼 요르단 베르베르인 방언, 즉 아랍어에 기반을 둔 구어체 방언에 대한 것이다. 또한 베르베르인들이 어느 시점에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상실하고 아랍어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을 밝혀 둔다.

- 11) “구어체 아랍어는 정복지의 여러 언어들과 접촉현상을 일으키면서 아랍어의 변종으로 나타나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아랍어도 역사성과 사회성을 두루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랍어의 양층 언어현상은 이슬람 출현 이전시대로부터 추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슬람 출현 이후로 나타난 언어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김종도, 2003: 33).
- 12) 현대 아랍어는 화자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지역 방언인 순수 구어체 아랍어(Plain Colloquial Arabic), 자유롭게 사용되는 순수 구어체 방언이지만 어느 정도 층위화 장치가 적용되는 코이네 구어체 아랍어(Koineized Colloquial Arabic),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고전화된 코이네 구어체 아랍어인 준문어체 아랍어(Semi Literary Arabic), 방언의 특징이 혼합된 고전 아랍어인 수정 고전 아랍어(Modified Classical Arabic), 방언의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표준 고전 아랍어(Standard Classical Arabic)의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 된다(이영태, 2004: 12).

대상에 맞게 현대화 된 현대표준아랍어(árabe estándar moderno)가 현재 아랍어권에서 사용되고 있다(사회만, 2000; 최진영, 2003).

이와 같은 아랍어의 양층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고전 아랍어 및 로망스어와 베르베르어의 영향을 받은 구어체 아랍어 방언(또는 변이형)이 사용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베르베르 군인들과 피정복민들은 구어체 아랍어와 더불어 중간아랍어(árabe medio)를 구사하였다(Lapesa, 1986: 32). 알-안달루스의 중간아랍어는 현대의 준문어체 아랍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변이형(variante)으로써, 원래는 구어체로 사용되었지만 대화내용을 기록할 때도 사용된 문어체와 구어체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진 변이형이었다. 따라서 알-안달루스에서는 식자층을 중심으로 한 고전 아랍어, 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구어체 알-안달루스 방언, 비식자층의 읽기와 쓰기에 사용되는 중간 아랍어의 세 가지 변이형이 존재하였다. 이 세 가지 변이형 중 고전 아랍어는 이슬람권 전역에서 통용되는 매우 보수적인 언어로써 언어접촉으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언어접촉으로 탄생한 변이형 중 구어체 아랍어는 그 언어적 특성상 기록으로 남겨진 텍스트가 전무하며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언어라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알-안달루스 아랍어 방언의 언어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상은 중간아랍어가 유일하다.¹³⁾

중간아랍어를 분석해 보면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로망스어와의 언어접촉으로 아랍어가 음성·음운학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구분되는 아랍어 모음이 로망스어의 영향으로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분이 사라지고 음의 장단이 길이가 아닌 음색(timbre)에 의해서 구분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랍어의 장모음 /ā/, /ī/, /ū/ 및 단모음 /a/, /i/, /u/의 구분은 사라지고 음의 강약(intensidad)에 따라서 강세 위치가 정해졌다. 또한 다른 지역의 아랍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음 /p/, /č/, /g/가 알-안달루스 아랍어 방언에 새롭게 유입되었으며,

13) 본고에서는 편의상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사용되던 중간아랍어를 ‘알-안달루스 아랍어 (el árabe andalusí)’라 칭하기로 한다.

최소 변별쌍을 이루는 음소 /d/와 /d̪/가 변별자질을 상실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용되는 로망스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음소에 속한 두 개의 변이음(alófono)으로 대체되었다. 로망스어가 아랍어에 미친 영향은 음성·음운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예를 들어 원래 아랍어 단·복수 2인칭 대명사에는 남성(단수 [anta], 복수 [antum])과 여성(단수 [anti], 복수 [antunna])의 구분이 있었으나 알-안달루스에서는 로망스어와 마찬가지로 성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아랍어 명사의 성이 로망스어의 성과 일치하게 변화되는 예가 발견된다(‘눈’과 ‘태양’을 뜻하는 아랍어 여성 명사 ‘ayn’과 ‘shams’가 스페인어 남성 명사 ‘ojo’와 ‘sol’의 영향으로 남성으로 변환). 또한 maxmūl(‘decaído’), mat’ūb(‘cansado’) 등의 예에서 보듯이, 상태 동사에 습관 형용사를 사용하는 아랍어와는 달리 수동분사를 사용하였으며,¹⁴⁾ 로망스어 어미 -el[la], -ón, -ic[a] 등이 사용되는 예가 목격된다. 어휘의 경우 로망스어가 아랍어에 대해 기층어(sustrato)로 작용하여 후자의 어휘가 전자로 대체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늑대’를 의미하는 /lupus/와의 언어접촉으로 알-안달루스 아랍어에는 ‘lubb’란 어휘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어휘 차용은 특히 동·식물, 농업 및 가사와 관련된 명칭에서 많이 목격되며, 차용 후에는 아랍어의 형태소를 받아들였다: 단수 lubb > 복수 lababah; 단수 nibšāriuh > 복수 nibšāriyāt(aniversario ‘기념일’). 또한 로망스어 어휘가 기존 아랍어 어휘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자와 후자가 공존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예를 들어 라틴어 /umblicum/ (‘배꼽’)에서 파생된 로망스어 어휘에서 유입된 ‘imlíq’와 전통적인 아랍어 어휘 ‘surra’가 공존하였다. 로망스어는 아랍어에 대하여 기층어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언어접촉으로 인한 상층어(suprastrato)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즉 알폰소 6세의 톨레도 재정복 이후 기독교도들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슬람교도들, 즉 무데하르들(mudéjares)은 지배층의 언어로 역할이 바뀐

14) “Uso de participio no-agentivo en verbos estativos(v. gr., LA 88 >maxmūl<decaído, 215 > matmūl<archipado, 293> mat’ūb<cansado, etc.) en lugar de los adjetivos habituales”(Corriente, 1992: 126).

로망스어의 영향으로 새로운 어휘들을 차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복 이전에는 아랍어에 존재하지 않던 *calongía*(*canongía* ‘수도승의 직’), *arçobispo*(*arzobispo* ‘대주교’) 등의 어휘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Corriente, 1983, 1992; Fernando, 2000; López-Morillas, 2000).

이처럼 알-안달루스의 아랍어는 언어접촉으로 인하여 로망스어와 기층, 방층(*adsrato*), 상층어의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지역의 아랍어와는 구분되는 이 지역 특유의 독특한 방언을 생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배계층이었던 무슬림들 중 상당수가 아랍어와 더불어 로망스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중언어구사자였다.¹⁵⁾ 이는 이들이 양층언어 환경과 더불어 이중 또는 다중언어환경에 노출된 언어적 상황 속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만 접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하며 삶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모사라베 공동체의 언어 사용

이슬람 세력에 의한 이베리아 반도 침공 초기의 정복자들의 숫자는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침략 후 반세기가 지날 동안에도 6만 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된다(강석영, 1988: 68). 이는 소수의 정복자들이 다수의 피정복자를 지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복 초기 수적으로 소수였던 이들은 4세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서고트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체에 의해 보호되는 도시 안에 거주하며 성 밖에 거주하는 피정복민들을 지배하였다. 이들과 서고트족에 의한 침공이 다른 점은 전자가 후자와는 달리 고도로 발달된 문

15) Entwistle(1962: 115)은 알-안달루스의 칼리프들과 상류층은 로망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중언어구사자였다고 주장하였다: “The caliphs and the entire upper classes were bilingual.” 무슬림들이 로망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뿐만이 아닌 Corriente(2005)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학설이다. 실제로 무슬림들이 아랍어뿐만이 아니라 로망스어를 12세기 초반기까지 구사할 줄 알았다는 많은 증거들을 Ibn Hazm의 *Jamharat ansāb al'arab*이나 Al-Khushanī 등의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López-Morillas, 2000: 46).

명을 이베리아 반도에 유입시켰다는 것과, 서고트족의 폭정에 지친 히스파노-로마인들이 후자의 몰락을 반겼다는 것이다.¹⁶⁾

일반적으로 이슬람 지배하의 기독교인들, 즉 모사라베들(mozárabes)은 자신들 고유의 언어와 종교적 자유를 보장 받으며 무슬림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하였다고 믿어져 왔다.¹⁷⁾ 따라서 모사라베들이 피지배층으로 비참한 삶을 영위하였던 것이 아니라 알-안달루스 고위직에도 임명 되는 등, 이질적 종교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믿는 학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언어의 상실과 보존은 사회기득권 획득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모사라베들의 언어사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모사라베들의 아랍어 사용

모사라베들의 아랍어 사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은 크게 이들이 아랍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는 것과 이들 사이에서 아랍어가 언제까지 통용되었느냐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모사라베들의 아랍어 수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정복 초기에는 모사라베들 대부분이 아랍어를 구사할 줄 몰랐으며 일부 식자층만이 아랍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특히 Zamora Vicente(1989)의 경우는 모사라베들이 아랍어를 구사할 줄 몰랐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상류층인 무슬림들이 아랍어가 아닌 로망스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러나 비록 이베리아 반도 침공 당시 정복자들이 수적으로 매우 열세이기는

16) "As for the Hispano-Romans, they had no reason to be discontented with the change of rulers. The long Arian controversy had bred in them a sense of antagonism to the Goths, in addition to the natural contempt of Roman for German"(Entwistle, 1962: 112).

17) "They had their own bishops(the çæt almatran), and proselytism was against the interest of the state...they were ruled by their own laws and counts; and they enjoyed the use of their own language"(Entwistle, 1962: 112).

18) "[...] hubo incluso musulmanes de elevada categoría social, o muy considerados por sus virtudes, que ignoraban el árabe y se expresaban solamente en romance"(Zamora Vicente, 1989: 16).

하였지만, 발달된 로마문명에 동화되어 자신들의 언어를 상실한 서고트족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들은 라틴어에 상응하는 고도로 정제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와 문자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것과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히스파노-로마인들에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9세기에 코르도바의 알바루스(Alvarus de Córdoba)란 사람이 모사라베들이 더 이상 라틴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한탄하는 글을 남긴 것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들어와 이미 아랍어의 사용이 이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⁹⁾²⁰⁾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알-안달루스에서 종교적 자유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공간에서만 보장되었으며 공적인 장소에서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언급은 꾸란(Qur'an)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는 신앙심 깊은 많은 기독교도들을 순교의 길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도들이 무슬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711년의 이슬람 침공 이후 향후 200여 년 동안 기독교도들에 의한 많은 반란과 순교가 이어졌다.²¹⁾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한 근거로 모사라베들의 관직진출의 예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지 코르도바의 칼리파토가 바그다드로부터 독립하여 에미라토(Emirato) 관계를 청산, 코르도바를 수도로 정하는 10세기 초반 이전에는 무슬림들이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히스파노-로마 주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즉 침공 후 약 200년에 이르는 기간 동

19) "Alas! the Christians do not know their own law, and the Latins pay no attention to their own tongue, so that in the whole community of Christ there can scarcely be found one man in a thousand who can send letters of greeting properly [expressed] to his fellow"(Wasserstein, 1991: 3).

20) Wasserstein(1991: 3)은 모하메드나 이슬람에 반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아랍어로 표현하는 순교자들이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9세기에 이미 아랍어의 사용이 많은 모사라베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On the surface, this is a startling fact, as it might appear to suggest that knowledge of Arabic(whether spoken alone, or written as well) was very widespread among the Christians at the time."

21) Menéndez Pidal(1929)은 톨레도가 코르도바의 칼리파토에 정복되는 932년까지의 시기를 반란과 순교의 시대로 정의하였다.

안 모사라베들의 관직 진출이 허용된 것은 표면상으로는 이들을 포용한다는 이유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수적으로 열세인 이들이 다수인 모사라베들을 장악하기 위한 융화정책의 일환이었을 뿐이다.²²⁾ 그러나 이슬람의 지배가 공고해지는 10세기 초반 이후에는 더 이상 모사라베들의 관직 진출이 없었으며 개종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어졌다. 실제로 10세기 중반까지 모사라베들 중 약 50%가, 11세기말까지는 이들의 80%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Bulliet, 1979). 또한 이슬람으로 개종한 몰라디에스들(muladies)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개종하지 않은 모사라베들의 고립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10세기 초반 이후 이들의 관직 진출 기회가 박탈당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³⁾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빈곤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장처럼 무슬림과 기독교도들이 평화롭게 공존한 것이 아니라 반란과 순교의 시기가 지난 10세기 초반 이후 후자의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개종, 아랍화 되면서 알-안달루스에서 서로 다른 인종이 이슬람이라는 동일 문화 내에서 융화된 것이다. 결국 아랍어는 이베리아 반도 침공 초기부터 피정복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0세기 초반 이후에는 거의 모든 피정복민들이 아랍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2) 1491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지속된 그라나다 양도를 위한 무슬림과 카스띠야 왕국 간의 협상 결과, 항복 이후 그라나다에서의 무슬림들의 법, 종교, 관습의 유지가 허용되었다. 또한 가톨릭 양왕은 기존 무슬림 지방관리들이 그라나다를 계속하여 통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라나다 함락 이후 상징적 의미 이외에 가톨릭 양왕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무슬림들에 대한 기독교 왕국의 통치기반이 확고하지 못하여 이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융화정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라나다에 대한 통치권을 점차적으로 확보한 가톨릭 양왕은 1502년 개종하지 않은 무어인들을 추방한다는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이들과의 합의를 파기하였다(엘리엇, 2000). 이처럼 무슬림들이 정복 초기에 기독교인들에게 융화정책을 펼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재정복 후 이들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수적으로 우세한 기독교도들의 융화정책 실시 기간이 훨씬 짧았다는 것이다.

23) 11세기말까지 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던 모사라베들도 1099년 및 1146년에 각각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알모라비데 및 알모아데에 의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북쪽의 기독교 왕국으로 이주하였다. Wasserstein(1991: 5-6)은 이 시기 이르러 사회 상부 진출과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모사라베들이 사회하류층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모사라베들의 아랍어 사용에 대한 두 번째 논란은 기독교도들에 의해 재정복된 지역에서 아랍어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느냐는 것이다. 즉 톨레도가 탈환된 1085년 이후 까스띠야 왕국이 재정복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모사라베들이 아랍어를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였느냐의 여부이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은 톨레도 등의 재정복 지역에 거주하는 모사라베들이 13세기 중반까지는 아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스띠야 왕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 모사라베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2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랍어와 아랍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였다는 사실에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톨레도에 거주하던 모사라베들의 아랍어 사용에 대해 분석한 Ferrando(2000: 47)는 모사라베들이 아랍문화와 아랍어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라틴어를 모르는 이들이 구사하던 로망스어가 구어체 언어에 불과한 결과 아랍어가 이미 이들 사이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이와 더불어 그는 모사라베 공동체로의 신규 인구유입을 부수적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알모라비데에 의한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알-안달루스 거주 모사라베들이 12세기 중반까지 톨레도 모사라베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사건은 이들이 아랍문화와 아랍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수적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들이 아랍문화와 아랍어를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1146년에 발생한 알모아데의 침공 이후 개종하지 않은 모사라베들이 알-안달루스에서 전원 추방되면서부터이다. 즉 까스띠야 왕국에 존재하는 모사라베 공동체에 12세기 중반 이후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중단되면서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서 점차 전세대의 언어와 문화가 상실되게 된 것이다. 사회·정치·경제적인 기독교권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 둘러싸인 하위집단은 동일집단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대가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24) "the so-called Mozarabic(Romance) dialect was essentially a spoken language, Latin had lost ground and Arabic presented itself as a viable, pre-existing medium"(Ferrando, 2000: 47).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은 신규 유입이 중단된 하위집단이 역동성을 잃은 후 3세대가 지난 후부터이다.²⁵⁾ 따라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인구유입이 중단된 후 이들이 사용하는 아랍어는 세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상실되기 시작, 13세기 중반이후에는 상기언어를 더 이상 구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할 때 13세기 중반에 이르러 기독교 왕국 내에 거주하는 모사라베들 사이에서 더 이상 아랍어가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 모사라베들의 로망스어 사용

정치적 이상 보다 종교적 이상이 우선시 되던 이슬람 통치 지역에서는 피정복민에게 아랍어의 사용을 강요하는 언어적 통일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슬람 침공 이후 알-안달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모사라베들의 로망스어 사용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이들은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아랍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언어구사자였다. 따라서 모사라베들이 사용하던 로망스어를 지칭하는 용어인 모사라베어란 용어는 복잡했던 알-안달루스의 언어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혼돈을 줄 수 있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모사라베인들이 이중언어구사자였다는 것을 상징할 때 모사라베어란 용어는 아랍어와 로망스어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모사라베들이 구사하던 로망스어를 모사라베 로망스어(*el romance mozárabe*)로 지칭하기로 한다.²⁶⁾

25) 상위언어와 하위언어가 공존할 시 하위언어는 이것을 구사하는 인구의 외부로부터의 신규유입이 중단된 3세대 이후부터 상실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미국 내 스페인어도 이민 3세대가 지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상실되고 있다. 이민 3세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미국 내 히스패닉 사회에서 스페인어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멕시코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신규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학, 1999).

26) Zamora Vicente(1989) 등은 모사라베들이 사용하는 로망스어를 이들이 구사하던 아랍어와 구별하지 않고 모사라베어라 칭하였다. 그러나 Corriente(1983, 1992, 2005)는 이들이 구사하던 알-안달루스 아랍어(*el hispano árabe/el árabe andalusí*)와 구별하기 위해 ‘*el*

지금까지 있어 온 모사라베 로망스어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논란은 상기 언어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언어적 특성에 대한 규명 여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상실 시기에 대한 논란은 기독교인들이 톨레도를 재정복하는 1085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 시기 이후에도 상기 언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었느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García de Diego(1959)와 Zamora Vicente(1989)는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기독교도들에 의한 재정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중 Zamora Vicente는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상실된 주요 원인이 톨레도가 재정복된 이후에도 이 지역 거주 모사라베들이 공식어(*lengua oficial*)로 로망스어가 아닌 아랍어를 사용한 것에 있다고 파악하였다.²⁷⁾ 반면, Wasserstein(1991)은 그와 마찬가지로 모사라베들의 아랍어 사용이 모사라베 로망스어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파악하면서도, 톨레도 정복 이전에 이들의 로망스어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9세기에 들어와 라틴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쓸 줄 모르게 된 알-안달루스의 모사라베들이 점차 일상어로써의 로망스어를 아랍어로 대체하기 시작한 결과, 11세기 중반에 들어와 이미 알-안달루스에서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11세기 중반에서 말 사이에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는 달리 Ariza(2005), Corriente(2005), Entwistle(1962), Ferrando(2000), Galmés de Fuentes(1977, 1983) 등은 톨레도 재정복을 기점으로 한 기독교도들의 남진 이후에도 재정복 지역에서 상기 언어가 상당 기간 상실되지 않고 보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Ariza와 Corriente는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12세기 중반 또는 12세기말에 상실되었다고 파악한 반면, Ferrando와 Galmés de Fuentes는 카스띠야어(*el*

romandalusi'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들어 Ariza(2005), Viguera Molins(2008)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27) Zamora Vicente(1989: 53)는 톨레도 거주 모사라베들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자신들만의 고유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13세기까지 아랍식 동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practicaban el rito propio [...] y todavía en el siglo XIII usaban moneda de tipo árabe."

castellano)의 체계가 확립되는 시점인 13세까지 사용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들 중 12세기와 13세기에 톨레도에서 간행된 알하미아도(aljamiado) 텍스트들을 분석한 Galmés de Fuentes는 아랍문자로 기록된 로망스어의 흔적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²⁸⁾ Entwistle²⁹⁾ 역시 모사라베 로망스어로 된 공중 문서들이 재정복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상실 시기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복 된 지역에서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하르차(jarcha)³⁰⁾가 11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사이에 왕성하게 창작되었다는 사실³¹⁾ 등을 고려할 때 상기어는 11세기말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2세기 중반 이후 알-안달루스 지역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고착상태에 빠진 재정복 지역의 모사라베 공동체에서는 점차적으로 상기어의 사용이 화석화 되었을 것이다. 또한 알폰소 10세(Alfonso el sabio)³²⁾의 재위기간(1252-1284년) 동안 까스띠야어의 표준화

28) Galmés de Fuentes(1977: 183)가 분석한 아랍문자로 기록된 모사라베 로망스어 텍스트, 즉 알하미아도 텍스트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1265년에 톨레도의 유명한 식물학자이자 의사인 Abd al-Rahmān ibn Muḥammad ibn Wāfīd가 저술한 *Kitāb al-wisād 'libro de la cabecera'*이다.

29) Entwistle(1962: 117)은 그라나다의 무슬림 인구 이십만 명 중 기독교도의 후손이 아닌 자가 500명에 불과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이 모두 추방된 뒤에도 로망스어를 구사할 줄 아는 'moros ladinados'가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알-안달루스에 거주하는 개종하지 않은 모든 기독교도들이 12세기 중반에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에서 모사라베 로망스어는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임을 밝혀 둔다.

30) 하르차의 아랍어 명칭인 'kharja' 대신에 본고에서는 'jarcha'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31) 가장 오래된 하르차는 11세기 중반에 Yosef al-Katib에 의해, 가장 최근의 것은 14세기 초반에 Ibn Luyun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á-Solé, 1990).

32) 알폰소 10세는 일상어의 수준에 머물던 까스띠야어의 철자 및 문법적 불규칙성을 통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기 언어로 된 많은 산문들을 남겼다. Robert Spaulding(1962: 65, 130)은 그를 '까스띠야 산문의 창시자(the founder of Castilian prose)'이자 '초기 스페인어의 위대한 안정자(the great stabilizer of the early Spanish language)'로 칭하였다.

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까스띠야어에 의해 급속히 대체된 결과, 14세기 초반 이후에는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사라베 로망스어에 대한 두 번째 쟁점은 언어적 특성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즉 García de Diego(1959)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상기 언어가 보수적(*conservador*)이며 의고적(*arcaizante*)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Zamora Vicente(1989)는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 사라지게 된 서고트 왕국의 언어적 연속성을 대표 한다³³⁾고 주장하며 상기 언어를 원시로망스어(*el habla románica primitiva*)라 정의하였다. 이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음성학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된 까스띠야어와는 달리,³⁴⁾ 모사라베 로망스어는 이러한 혁신적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북쪽의 레온어(*el leonés*), 아라곤어(*el aragonés*), 갈리시아-포르투갈어(*el gallego-portugués*), 까탈란어(*el catalán*) 등과 유사한 음성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즉 모음 *a* 또는 *e* 앞에서 라틴어 어두자음 *g-* 또는 *j-*가 탈락하는 까스띠야어와는 달리, 모사라베 로망스어는 북쪽의 다른 로망스어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어두자음을 보존한다. 예를 들어 라틴어 대격단수명사 *jenuārium*과 *genesta*는 까스띠야어에서 어두모음이 탈락하여 각각 *enero*와 *hiniesta*로 변화한 반면, 모사라베 로망스어에서는 어두모음이 보존되어 각각 *yenešta*와 *yenair*로 변

33) “el habla mozárabe, como queda dicho, representa la relativa continuidad lingüística peninsular que, existente durante el período visigótico, se borra por la avalancha musulmana”(Zamora Vicente, 1989: 20).

34) 까스띠야어가 여타 로망스어와는 달리 음성학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된 배경에는 독립 초기 낮은 인구밀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초기 까스띠야 사회에는 각 지역에서 물려든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게 된 결과, 이들 간의 언어접촉으로 다른 로망스어와는 구분되는 언어적 혁신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민자들 중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바스크인들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까스띠야어 모음의 단순화, 어두자음 *f-*의 상실 및 순치음 */v/*의 상실 등과 같은 혁신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이재학, 2008: 21-22).

35)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모사라베어에 미친 아랍어의 영향은 크지 않으며, 굳이 예를 들자면 어미자음에 로망스어에는 낯선 음소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정도이다: *ešparag*, *lop*, *calápac*, *panich*(Zamora Vicente, 1989: 49).

화하였다. 라틴어 어두자음군 *pl-*, *cl-*, *fl-* 역시 보존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난 까스띠야어와 대조를 보인다³⁶⁾: *plana*(‘llana’), *plantayn*(‘llantén’). 또한 라틴어 어두자음 *f* 및 어중자음군 *-mb-*는 보존되었다: *filyo*(‘hijo’ < *filium*), *lumbillo*(‘lomo’ < *lumbum*). 까스띠야어에서는 요드(*yod*)의 영향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라틴어 어중 자음군 *-ct-*, *-(u)lt-*의 경우, 모사라베 로망스어에서는 치조음을 보존하였다: *noxte*(‘noche’ < *noctem*), *lahte*(‘leche’ < *lactem*). 전자에서 구개음화를 거쳐 연구개음화가 일어나는 *-lj-*, *-c’l-*, *-g’l-* *-lj-*의 경우, 후자에서는 *-lj-*를 유지하였다: *welyo*(‘ojo’ < *oculum*)(Ariza, 2005; Galmés de Fuentes, 1983; García de Diego, 1959; Penny, 2000; Peñarroja Torrejón, 1990; Zamora, 1989).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어두자음 *f*의 경우는 까스띠야어에서도 15세기 이전에는 보존되었으며, 이는 동방로망스어(*lenguas romances orientales*)와 서방로망스어(*lenguas romances occidentales*)의 구분 없이 중세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모음의 경우 라틴어 강세모음 *ē*와 *ō*가 모사라베 로망스어에서도 많은 경우 이중모음화 되었고³⁷⁾ 까스띠야어에서도 이중모음화가 매우 불규칙하였다는 점³⁸⁾ 및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라틴어 어미 *-ellum*의 경우 이중모음화 되지 않고 까스띠야어와 마찬가지로 *-illo*³⁹⁾로 축약되는 경우도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6) 아라곤어나 까탈란어 등과는 다르게 갈리시아-포르투갈어에서는 까스띠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두자음 *pl-*, *cl-*, *fl-*의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plegāre* > *chegar*(‘llegar’).

37) 강세모음 *ē*와 *ō*의 경우 이중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나, 초성일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중모음화 되었다: *yerbāt*(‘yerba’), *werta*(‘huerta’).

38) 까스띠야어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알폰소 10세 때 편찬되었던 많은 서적들에서도 라틴어 강세모음 *ē*와 *ō*의 이중모음화가 매우 불규칙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Steven L. Hartman(1974: 49)은 알폰소 10세 때 편찬된 저서 *libro de las cruces*를 분석한 후 이중모음화가 매우 불안정적이어서 라틴어 강세모음 *ē*와 *ō*의 두 가지 변이형이 혼재함을 발견하였다: *alonga/aluenga*, *confessa/confiessa*, *conorta/conuerta*, *costa/cuesta*, *decende/deciente*, *defende/defiende*, *denosta/denuesta*, *dispensa/dispiensa*, *endereça/enderieça*, *serra/sierra*, *sembra/siembra*.

39) 모사라베 로망스어에서는 라틴어 강세모음이 이중모음화 된 *cardiello*, *espatilla*, *culebriella* 등과 모음 *-e-*가 탈락한 *cardillo*, *espatilla*, *culebrilla* 등이 같이 존재하였다. 까스띠야어의 경우도 알폰소 10세의 시기 때까지는 *castiella*와 *castilla*가 병행되어 사용되는 등 혼돈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모사라베 로망스어를 서고트 왕국의 언어현실을 반영하는 화석화된 언어로 보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한다.⁴⁰⁾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모사라베 로망스어 역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사라베 로망스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모든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1037년에 레온 왕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까스띠야 왕국에서 사용되던 로망스어가 혁신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에 반해, 서고트 왕국의 지배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 사회계급 변동 및 인구유입이 크지 않았던 북쪽의 기독교 왕국들 및 상대적으로 고립된 채 삶을 영위하여야 했던 모사라베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로망스어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형태·통사론적인 특징에 대하여는 1948년에 S. M. Stern이 20편의 하르차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다.⁴¹⁾ 그러나 Stern의 하르차 발견 후 상기 언어의 형태·통사론적인 특징에 대한 파악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르차 분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형태·통사론적인 특징이 다른 로망스어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모사라베 로망스어에서 사용되는 소유형용사(*meu, tu*), 지시형용사(*est, este*), 인칭대명사(*eo, tú, ellu, él, vos*), 목적대명사(*me, te, se*), 부정대명사(*otri, otris*), 의문사(*qui, que*) 및 동사변화(*tornarád, querid, vivirá, fará*) 등이 다른 로망스어와 거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휘적인 측면에서 모사라

40) Rafael Lapesa는 라틴어 강세모음 *e*와 *o*의 이중모음화, 어중자음군 *-t, -k-*의 모음 사이에서의 유성음화의 예가 많이 발견된다면서 모사라베 로망스어를 의고적이고 화석화된 언어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Galmés de Fuentes, 1983: 7-8). 그러나 모음 사이에 위치한 무성파열음의 유성음화는 기원 1세기 이후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서 사용되던 통속 라틴어에서는 이미 일반화되기 시작한 현상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언어적 혁신의 예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밝혀 둔다.

41) 모사라베 로망스어에 대한 연구는 1) 지명 2) 라틴어-아랍어 어휘집(*los glosarios latinos-árabes*) 3) 비문(*las inscripciones*) 4) 아랍작가들의 알함미야(*aljamía*) 속의 인용문 5) 식물학 및 의학과 관련된 로망스어 용어들 6) 토지대장(*los libros de repartimientos*) 7) 하르차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밝혀둔다(Ariza, 2005; Sanchis Guarner, 1948; Zamora Vicente, 1989).

베 로망스어가 많은 아랍어 어휘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형태·통사적인 구조는 어디까지나 로망스어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음의 뜻한다.⁴²⁾ 따라서 모사라베 로망스어는 북쪽의 기독교 왕국들에서 사용하는 로망스어와 어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알-안달루스에 지속적으로 북쪽 기독교 왕국에서 여자 노예들이 유입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⁴³⁾ 모사라베 로망스어가 일반적인 통념처럼 고립된 언어가 아니었으며 북쪽에서 사용되던 로망스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변화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 말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이후 이들이 정복한 알-안달루스 지역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르베르어, 아랍어, 로망스어 등의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며 상호간에 상층, 방층, 기층어의 관계를 형성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혼재로 인하여 서로 다른 종교적 이념을 가진 공동체 간에도 언어접촉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알-안달루스 아랍어 방언은 다른 지역의 아랍어와는 달리 로망스어의 영향을 받아 언어학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베르베르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립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자료가 극히 빈약하여 이베리아 반도에서 어느 시기에 상기 언어가 상실되었는지의 여부 및 알-안달루스의 다른 언어들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료

42) 하르차에서 발견되는 아랍어의 영향을 받은 모사라베 로망스어의 형태론적 특징은 아랍어 관사 *al*의 사용이 유일하며 통사론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al-hilī* 'joyas'(7번 하르차), *al-niyya* 'ley'(19번 하르차), *al-raḡībī* 'espía'(17번 하르차). 반면 어휘의 경우 *albišara* 'las noticias', *al-habib* 'el novio', *alhajas* 'alegría' 등과 같은 많은 아랍어 어휘들이 차용되었다.

43) Entwistle(1962: 115)은 부유층들 및 칼리프의 첩과 노예로 기독교 여자노예들, 그중에서도 특히 갈리시아, 레온 및 카스띠야 지역의 여자들이 선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For the harems of the wealthy, and of the caliph himself, Christian slave-women were preferred, and particularly those from Jālikīya(Galicia, León and Castile)."

발굴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모사라베들이 사용하던 로망스어의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화석화 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적 변이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세기 중반 이후 모사라베 공동체가 놓이게 된 사회적 상황에 의해 이들 공동체가 유동성을 상실하고 고립됨에 따라 점차 모사라베 로망스어는 상실되게 된다. 이는 유동성을 상실하고 고립된 하위집단의 언어(또는 변이형)는 기득권을 가진 상위집단의 언어(또는 표준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다인종·다문화 사회였던 중세 이베리아 반도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였으며, 자신들의 속한 공동체가 사회·언어적 유동성을 상실하는 순간 하위어는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석영(공저). 1988. 『스페인 · 포르투갈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명식. 2004. 『아프리카어 연구입문: 계통분류 및 구조 비교분석』.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종도. 2000. 『알기 쉬운 아랍어 기초 문법』. 서울: 명지출판사.
- _____. 2004. 「이라크 방언의 언어적 특징과 효율적 학습방안」. 21세기 중동 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편). 『중동언어의 이해 I』. 서울: 한울. 33-58.
- 레이몬드 카(공저). 2006. 『스페인사』. 김원중 외 옮김. 서울: 까치글방.
- 사회만. 2000. 『아랍의 언어와 문학』.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 윤용수. 2007. 『아랍어와 아랍문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영태. 2004. 「아랍어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 연구: 레반트 방언을 중심으로」.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편). 『중동언어의 이해 I』. 서울: 한울. 9-31.
- 이재학. 1999. 「언어의 보존과 상실- 미국 내 스페인어의 현주소」. 《서어서문연구》, 15: 193-214.
- _____. 2002. 『스페인어 어원 및 계통론』. 서울: 송산.
- _____. 2008. 「스페인어의 기원」. 고려대학교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 연구소(편). 『작품으로 읽는 스페인 문학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7-24.
- _____. 2008. 「다인종 ·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접촉과 변이: 유대 스페인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베로아메리카》, 10(2): 239-267.
- 존 엘리엇. 2000.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김원중 옮김. 서울: 까치글방.
- 최진영. 2003. 「요르단 구어체 아랍어의 변종과 음운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3(2): 143-162.
- Ariza, Manuel. 2005. "El romance en al-Ándalus." in Rafael Cano(ed.).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2nd ed. Barcelona: Editorial Ariel. 207-235.

- Bosch Vilá, Jacinto. 1978. "A propósito de la berberización de al-Andalus." *Les cahiers de Tunisie*, 26: 129-141.
- Bulliet, Richard W. 1979. *Conversion to Islam in the Medieval Period: An Essay in Quantitative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rriente, Federico. 1981. "Nuevos berberismos del hispanoárabe." *Awraq*, 4: 27-30.
- _____. 1983. "Algunos sufijos derivativos romances en mozárabe, hispanoárabe y en los arabismos hispánicos." *Aula Orientalis*, 1: 55-60.
- _____. 1992. *Árabe andalusí y lenguas romances*. Madrid: Editorial MAPFRE, S. A.
- _____. 2005. "El elemento árabe en la historia lingüística peninsular: actuación directa e indirecta. Los arabismos en los romances peninsulares(en especial, en castellano)." in Rafael Cano(ed.).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2nd ed. Barcelona: Editorial Ariel. 185-206.
- Entwistle, William J. 1962. *The Spanish Language together with Portuguese, Catalan and Basque*. London: Faber & Faber Limited.
- Ferrando, Ignacio. 1997. "G. S. Colin y los berberismos del árabe andalusí." *Estudios de dialectología norteafricana y andalusí*, 2: 105-145.
- _____. 2000. "The Arabic Language among the Mozarabs of Toledo during the 12th and 13th Centuries." in Jonathan Owens(ed.). *Arabic as a Minority Language*. New York: Mouton de Gruyter. 45-63.
- Galmés de Fuentes, Alvaro. 1977. "El dialecto mozárabe de Toledo I: Sistema de transliteración del aljamiado mozárabe." *Al-Andalus: Revista de Estudios Arabes de Madrid y Granada*, 42: 183-206.
- _____. 1977. "El dialecto mozárabe de Toledo II: Rasgos lingüísticos principales." *Al-Andalus: Revista de Estudios Arabes de Madrid y Granada*, 42: 249-299.

- García de Diego, Vicente. 1959. *Manual de dialectología española*. 2a ed. Madrid: Ediciones Cultura Hispánica.
- _____. 1983. *Dialectología Mozárabe*. Madrid: Gredos.
- Hartman, Steven Lee. 1974. "Alfonso el Sabio and the Varieties of Verb Grammar." *Hispania*, 57(1): 48-55.
- Lapesa, Rafael. 1986.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9th ed. Madrid: Gredos.
- López-Morillas, Consuelo. 2000. "Language." in María Rosa Menocal, Raymond P. Scheindlin and Michael Sells(eds.). *The Literature of Al-Andal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59.
- Menéndez Pidal, Ramón. 1929. *Orígenes del español: estado lingüístico de la Península Ibérica hasta el siglo XI*. 2a ed. *Revista de Filología Española*, Anejo I. Madrid: Librería y Casa Editorial.
- Penny, Ralph. 2000. *Variation and Change in Spa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ñarroja Torrejón, Leopoldo. 1990. *El mozárabe de Valencia: Nuevas cuestiones de fonología mozárabe*. Madrid: Editorial Gredos.
- Sanchis Guarner, Manuel. 1948. *Introducción a la historia lingüística de Valencia: Con un prólogo de Ramón Menéndez Pidal*. Valencia: Institución Alfonso el Magnánimo.
- Spaulding, Robert K. 1962. *How Spanish Grew*. 3th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olá-Solé, Josep M. *Las Jarchas Romances y sus moaxajas*. Madrid: Taurus.
- Viguera Molins, María Jesús. 2008. "¿Existe una identidad mozárabe?" in Mayte P. Cyrille Aillet and Philippe Roisse(eds.). *¿Existe una identidad mozárabe?: Historia, lengua y cultura de los cristianos de al-Andalus(siglos IX-XII)*. Madrid: Casa de Velázquez. 299-314.
- Wasserstein, David J. 1991. "The Language Situation in al-Andalus." in Alan Jones and Richard Hitchcock(eds.). *Studies on the Muwaššah and the*

Kharja: Proceedings of the Exeter International Colloquium. Ithaca Press
Reading for the Board of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Oxford
University: Oxford. 1-15.

Zamora Vicente, Alonso. 1989. *Dialectología española*. 2a ed. Madrid: Editorial
Gredos.

이 재 학

주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

E-mail: andyjlee@korea.ac.kr

-
- 논문접수일: 2009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5일
 -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27일